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이경미¹ 이주리²

Kyeong Mi Lee¹ Ju Lie Lee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meta-analysis of domestic journals from 2010 to 2017.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9 effect sizes calculated from the 41 research materials selected i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and “The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The Institute of Korea Arts Therapy).

Results: First, the overall mean effect size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art therapy for this study was 1.69, which indicates that the programs proved to be useful for children. Second, the session with the largest effect size consisting of 7~10 group members was conducted more than 20 times in total, with the time per session of 60~90 minutes.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elementary school art therapy can be an effective way of solving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and will be useful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and research.

key words meta-analysis,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oup art therapy programs, effect size

*이 연구는 교신저자의 중앙대학교 2017년 연구년 지원을 받은 연구임.

¹ 제1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²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e-mail : julie041206@gmail.com)

I. 서론

Erickson(1993)에 따르면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각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제가 있다. 그러한 과제를 그 시기에 잘 수행, 해결한다면 인생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시기상 성인과 비교하면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언어화하여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박혜정, 2008; 홍은주, 조미영 2010).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인 언어

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경선, 김진선, 2017). 이처럼 미술치료는 초등학생에게 내면의 세계를 표출하는 것을 도와주며, 미술활동과정을 통해 흥미와 즐거움, 성취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국내에 미술치료가 도입되면서 개인치료뿐 아니라 집단형태로 진행되는 치료집단도 활발하게 발전되어왔다(전중국, 2007).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치료기법을 집단에 도입한 것으로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생활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관리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에 목표를 둔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집단미술치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개개인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개인적 경험과 집단경험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Patterson(1973)에 따르면, 아동은 타인과의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적 작용을 통해서 개인만의 독특한 개성과 정체성을 갖추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구축하게 된다. 아동 스스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내적인 노력을 돕고, 그 가운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이해, 허용, 지지와 같은 역동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홍성란, 2010).

1990년 미술치료의 도입 이후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는 치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양적 연구와 사례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 등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 한 예로 홍성란, 유형근 그리고 김현경(2010)논문에서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약 1900편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검색어로 ‘미술치료’로 약 8,200여 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어 졌으며, ‘집단미술치료’의 검색으로는 약 3,800여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었다. 이는 미술치료와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미술치료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미술치료에 의한 효과를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게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의미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연구마다 다른 대상, 매체 내용,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연구단위로 보고하고 있어서 미술치료의 보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홍성란 등, 2010).

따라서 기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의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메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많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수량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별의 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분석법이다(오성삼, 2002). 즉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통계적 분석결과들을 분석하는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라(Glass, 1982)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메타분석은 효과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크기를 지수로 사용하여 치료대상 특성 간 비교뿐 아니라 치료기법 간 비교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Bratton, Ray, Rhine, & Jones, 2005).

메타 분석이 문헌연구와 차별되는 것은, 문헌 연구의 경우 투입된 변수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의 연구 결과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해당 주제의 변인들이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메타분석은 단순히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지 않고 관련 연구의

통계 결과를 효과크기 값으로 단일화 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된 관련 주제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지하, 2011; 홍성란, 2010). 일반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대해 비슷한 연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헌연구로는 일목요연하게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광범위하게 종합하여 믿을 수 있는 일반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의 메타분석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 분석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메타분석 초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효과를 분석한 29편의 논문에서 효과크기를 분석한 임주영(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메타분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등 특정대상에 대한 연구(곽남희, 2010; 김선옥, 2011; 유현정, 이근매, 2012; 이성수, 2009; 이정민, 2010; 임주영, 2003; 홍성란, 2010)와 우울 및 자존감에 관한 논의(남정현, 김을란, 2012; 김지하, 2011)로 구분된다. 그 외에 서주연(2011)은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미술치료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고, 황명희(2014)는 아동미술치료 도구와 관련된 메타 분석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박정은(2016)은 아동의 우울감소에 집단미술치료의 중재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름(2018)은 저소득아동의 미술치료 연구동향 및 중재 효과 메타분석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통한 치료 효과가 아닌 집단상담 미술치료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것이다.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은 미국 미술치료학회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미국의 미술치료는 1940년대부터 치료적 양식으로 도입되었으며 1966년 미국미술치료협회(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로 설립되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미술치료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한국 미술치료학회, 2000).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AATA)에서 발간하는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에 게재된 미술치료 동향을 보면 Slaytonm, D'Archer 그리고 Kaplan(2010)의 연구에서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임상 및 비 임상으로 구분된 모든 연령대에서 미술치료효과의 결과를 입증 하였고, 또한 Campbell(2010)의 연구에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외상 아동들의 불안과 스트레스의 증상을 줄이기 위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통해 입증하였다. AATA에서 발간된 학회지 분석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3-5명의 소그룹의 연구로 진행되어 국내의 6-10명 미만으로 진행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사례연구가 많은 이유가 개별 관찰과 심층 분석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미술치료의 환경적 요인으로 치료의뢰 및 동기 그리고 치료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술지는 다양한 분야의 상담 관련 논의와 주제 및 이론과 실제 상담활동에 대한 다각도의 담론 및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연구자들은 학술지를 학문의 발전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또한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학회의 학술지는 그 학문 분야의 이론적 및 실제적 관심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며,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의 전환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이고 동

시에 그것들이 변화 발전하여 온 발자취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이러한 시도는 일각에서는 제한된 연구 자료로 인해 연구의 동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술분야에 대해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미술치료분야에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빈과 홍은주(2008)의 1994년~2007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재논문 276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을 시도 하였으며,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그리고 최응용(2011)은 1994~2010년까지 한국미술치료의 연구동향에 대해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동향 분석을 하였다. 박미숙과 이근매(2015)는 2005~2014년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발표연도 및 자료의 유형별, 연구대상의 특성별, 연구 내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연구동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종속변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혜정(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정서, 사회성, 문제행동 등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효과 크기를 살펴 보았으며, 윤현아(2013)의 연구에서는 우울 감소를 위한 아동 집단 미술치료 중재효과에 대한 메타분석(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이 있다. 성경선과 김진선(2017)은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들 중 정서영역(정서지능, 스트레스, 공격성, 분노, 우울·불안, 행복감)의 효과 값을 살펴 보았으며, 조영미와 이동영(2016)은 아동청소년에게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종속변인으로 사회성 발달의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 효과를 살펴보았다. 김서안(2013)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사회성의 자기주장, 공감, 자기조절, 협동성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대상에 따른 동향 분석과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인에 따른 연구, 그리고 기타 요소들의 논의에 대한 연구들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치료 학회지가 해당 학문의 공식적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가지며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과 특정 학문의 현 상태는 해당 학문의 전문 종사자들의 모임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 가장 잘 반영된다(조성호, 2003)는 점에서 학회지 게재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술치료관련학회가운데 유일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된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예술치료학회의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향후 미술치료학의 연구동향 파악과 미술치료학의 학문적 자기성찰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로서 앞으로의 전문학술지로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술치료연구’와 ‘한국예술치료학회지’에 발표된 미술치료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다 향후 진보된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 기법의 개발을 위한 실효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 8년간 ‘미술치료연구’ 와 ‘한국예술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하여 연구 동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집단미술치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더욱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변인별 평균효과 크기와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기준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아동복지전공자로서 미술치료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미술치료의 실험 연구 대상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제일 많다(기정희 등, 2011). 이는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논문의 선정 기준은 두 개의 학술지 논문이 미술치료와 관련해서 한국예술재단의 등재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근의 논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 중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선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이 ‘집단미술치료’ 혹은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인 논문이어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이 초등학생이며,

셋째, 연구 설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를 비교한 논문

넷째,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이 통계적 수치가 정확하게 제시된 논문

2. 자료수집 및 방법절차

문헌 검색은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은 PRISMA Flow Diagram(Moher, Liberati, Tetzlaff, Altman & Prisma, 2010)에 따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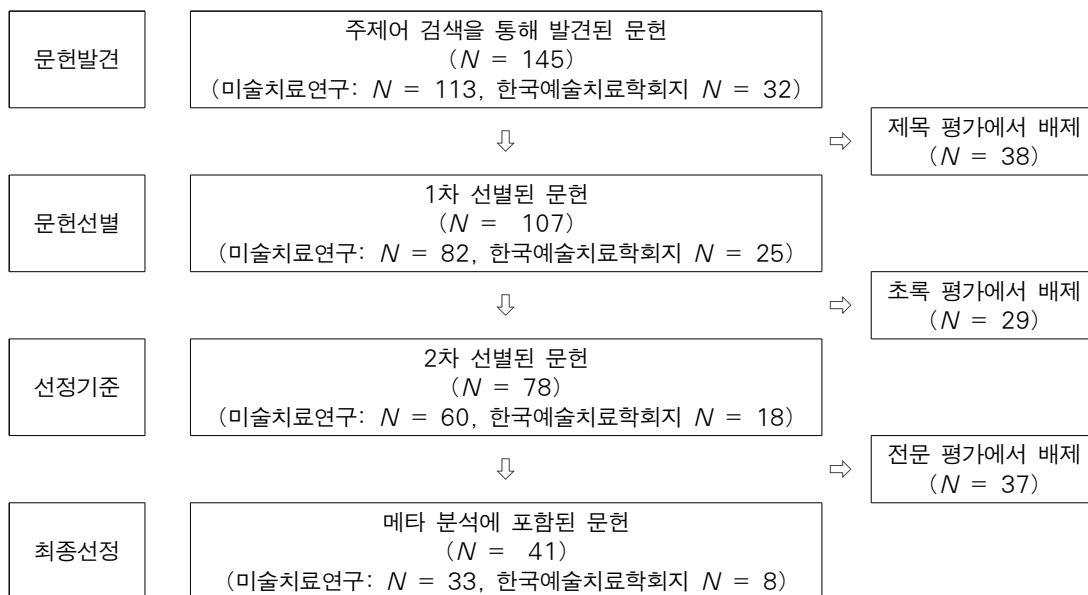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검색 및 선정과정

첫째, 연구 논문 수집은 미술치료 관련 학회지를 10년 이상 계속 발간하고 있는 학회지를 연구대상 선정 조건으로 하여 분석대상 논문은 ‘미술치료연구’와 ‘한국예술치료학회지’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제어 검색을 통해 발견된 문헌은 총 145편이었다.

둘째, 검색된 문헌 중에 논문 제목 평가를 통해, 실험 연구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불가능한 질적 연구를 제외한 결과, 1차 선정된 문헌은 총 107편이었다.

셋째, 초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비교집단이 없거나, 사전, 사후연구, 통계수치가 불분명한 연구 등을 제외 하였으며, 검색된 문헌 중에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최종 메타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문헌은 총 41편(부록 1참고)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 코딩

최종 분석대상 논문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 특성에 따라 코딩을 하였다. 코딩은 연구의 특성과 내용을 세분하여 코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특성을 선정하여 코딩하는 작업에는 가급적 한사람 이상의 평가자에 의해 분류 및 코딩 작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분류하는 데에 따른 평가자 상호간의 합치 도를 계산하여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오성삼, 2002). 코딩 양식은 일련번호, 논문제목, 발표년도, 자료출처,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구대상자의 유형, 연구대

상자 수, 총 시행횟수, 주당 시행횟수, 회기 당 시행시간, 프로그램 진행목적(종속변인), 사전 사후 통계점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변인은 종속변인이 하위척도를 가진 경우 각각 분리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여 각각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특성은 ‘일반아동’, ‘부적응아동’, ‘장애아동’, ‘시설아동’, ‘기타’로 구분하였다. 정상아동은 ‘일반아동’으로, 통상적인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문제를 지닌 정상아동은 ‘부적응아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정서장애, 정신지체아동은 ‘장애아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밖에 보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인 경우 ‘시설아동’으로,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성(sex)은 남성, 여성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실험한 경우 혼성으로 구분하였다. 본문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항목은 결측 처리 하였다.

2) 효과 크기의 산출과 해석

비교실험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크기(effect size)’이다. 효과크기란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차를 통제집단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효과크기의 의미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에 비해 표준점수 척도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이지훈, 1993). 효과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연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효과크기의 공통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표준화된 평균차로 나타내는 효과크기를 정의하고 통합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오성삼,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합표준편차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통합표준편차를 이용한 효과크기의 공식 1과 같다.

<공식 1>

$$ES_{sm} = \frac{\bar{X}_e - \bar{X}_c}{S_{pooled}}$$

\bar{X}_e : 실험집단의 평균

\bar{X}_c : 통제집단의 평균

S_{pooled} : 통합표준편차

$$S_{pooled} = \sqrt{\frac{(n_e - 1)s_e^2 + (n_c - 1)s_c^2}{n_e + n_c - 2}}$$

n_e : 실험집단의 사례 수

s_e :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n_c : 통제집단의 사례 수

s_c : 통제집단의 표준편차

표준화된 평균치에 의한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은 만약에 표본수가 적을 경우에는 효과크기가 실제 값보다 크게 산출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된다(오성삼,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표본(small sample size)으로 인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표본의 사례수가 20 미만인 경우에 공식 2를 적용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다.

<공식 2>

$$ES'_{sm} = ES_{경장} \left[1 - \frac{3}{4N-9} \right]$$

ES'_{sm} = 효과크기의 교정계수,

N = 실험집단의 사례수 + 통제집단의 사례수

효과 크기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Cohen(1988)의 기준을 활용한다. 그는 $ES = .20$ 은 작은 효과크기, $ES = .50$ 은 중간 효과크기, $ES = .80$ 은 큰 효과크기라고 하였다(Cohen, 1988). 예를 들면, 효과크기가 0인 경우는 양(+)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효과크기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처치 집단보다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이 더 나은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서도 사용한다.

4. 출판 편향의 검토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판편향 분석(publication bias analysis)을 위해 먼저 funnel plot 분석을 통해 그 오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 분석에 사용된 연구물의 출판편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깔때기 그림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각 연구의 효과크기가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크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깔때기 그림에서 비대칭 모양의 분포가 일부 나타나,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을 것으로 고려되는 편향성이 조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효과 크기의 비대칭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Egger 등(1997)가 제시한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Egger's regression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bias = 1.344$, $df = 257$, $p = 0.0109$)로 나타나 통계적 분석의 결과로도 효과크기가 비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향의 위험이 발견되었다.

5. 자료처리 방법

자료처리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데이터의 값을 코딩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평균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평균효과 크기와 차이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수집된 논문에서 수집된 자료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평균효과 크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Tukey로 사후검증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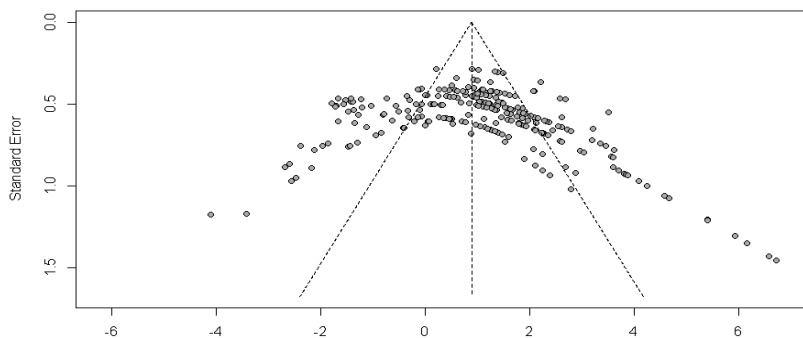


그림 2. 출판편향 검토를 위한 funnel plot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 논문의 전반적인 경향

1)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분포

(1) 연도별 분포

연구대상 논문 41편을 연도별 분포로 살펴본 결과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편(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에는 6편(14.6%), 2011년에는 5편(12.2%), 2012년, 2013년과 2016년에는 각각 4편(9.8%), 2017년에는 2편(4.9%)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분포

발표년도	논문 수(<i>n</i>)	백분율(%)
2010	8	19.5
2011	5	12.2
2012	4	9.8
2013	4	9.8
2014	8	19.5
2015	6	14.6
2016	4	9.8
2017	2	4.9
Total	41	100.0

(2) 자료출처 분포

연구대상 논문의 자료출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제시된 것과 같이 자료출처를 살펴보면 미술치료학회지 33편(80.5%),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편(19.5%)로 미술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많게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 논문의 자료출처 분포

자료출처	논문 수(n)	백분율(%)
미술치료학회	33	80.5
한국예술치료학회	8	19.5
Total	41	100.0

2) 종속변인에 따른 분포

본 연구대상의 분석기준에 맞추어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 감소’,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긍정적 정서 및 기능의 향상’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영역에는 자아 존중감, 자기(아)효능감, 자아개념, 자기상, 자기표현을,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 감소’영역에는 불안, 우울, 공격성, 분노표현, 부주의성, 과잉충동성, 문제행동을,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영역에는 사회성, 친사회적행동, 학교적응, 또래관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대처능력,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등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정서 및 기능의 향상’영역에는 정서지능, 뇌기능지수, 자기조절능력, 분노조절향상, 애착, 공감능력,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성취동기, 창의성, 사회인지, 내적통제성 등을 포함시켰다. 연구대상 논문의 종속변인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영역이 22편(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 및 기능의 향상 영역이 16편(24.3%),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이 14편(21.2%), 부정적 정서-행동문제 감소 영역이 14편(21.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22편(33.3%)으로 가장 많았다.

표 3. 연구대상 논문의 종속변인별 분포

종속변인 영역	수(n)	백분율(%)
자아개념-자아존중감 향상	14	21.2
부정적 정서- 행동문제 감소	14	21.2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22	33.3
긍정적 정서 및 기능 향상	16	24.3
Total	66	100.0

3) 연구대상에 따른 분포

(1)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

연구대상 특성에 따른 유형별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아동’, ‘부적응아동’, ‘장애아동’, ‘시설아동’, ‘기타’로 구분 하였다. 부적응 아동과 장애아동은 각 연구에서 모종의 문제를 보유한 아동으로 정의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선별된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일반아동’과 ‘부적응-장애아동’, ‘시설아동’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형제를 둔 아동을 ‘기타’로 묶어서 4가지 범주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형제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16편(39.0%)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12편(29.3%),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8편(19.5%), 부적응-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5편(12.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에 따른 분포는 기타로 분류된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

연구대상 유형	논문 수(n)	백분율(%)
일반아동	12	29.3
부적응-장애 아동	5	12.2
시설 아동	8	19.5
기타	16	39.0
Total	41	100.0

(2) 연구대상의 집단구성원 수별 따른 분포

연구대상 논문의 집단구성원 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구성원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8명이 8편(19.5%)으로 가장 많았고, 5명, 6명, 10명이 각 5편(12.2%)으로 많았으며, 9명, 12명이 각 4편(9.8%), 7명이 3편(7.3%), 13명이 2편(4.9%), 11명, 14명, 18명, 25명, 27명이 각 1편(2.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구성원 수가 8명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미술치료프로그램 진행시 관련 변인에 따른 분포

(1) 미술치료프로그램 총 시행횟수별 분포

미술치료프로그램 적용 기간 동안의 전체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총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12회가 10편(24.4%)으로 가장 많았고, 15회와 20회가 각 8편(19.5%), 16회가 5편(12.2%), 10회와 14회, 18회가 각 2편(4.9%), 13회, 17회, 24회, 25회가 각 1편(2.4%)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구성원 수에 따른 분포

집단구성원 수	논문 수(<i>n</i>)	백분율(%)
5	5	12.2
6	5	12.2
7	3	7.3
8	8	19.5
9	4	9.8
10	5	12.2
11	1	2.4
12	4	9.8
13	2	4.9
14	1	2.4
18	1	2.4
25	1	2.4
27	1	2.4
Total	41	100.0

표 6. 총 시행횟수

총 시행횟수	논문 수(<i>n</i>)	백분율(%)
10	2	4.9
12	10	24.4
13	1	2.4
14	2	4.9
15	8	19.5
16	5	12.2
17	1	2.4
18	2	4.9
20	8	19.5
24	1	2.4
25	1	2.4
Total	41	100.0

(2) 미술치료프로그램 주당 시행횟수별 분포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주당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주당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 1회가 18편(43.9%)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는 17편(41.5%), 주 1회~2회가 4편(9.8%), 주 3회가 1편, 주 2회~4회가 각각 1편(2.4%)으로 대부분 주 1회나 주 2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당 시행횟수

주당 시행횟수	논문 수(n)	백분율(%)
주1회	18	43.9
주1회~주2회	4	9.8
주2회	17	41.5
주3회	1	2.4
주2회~4회	1	2.4
Total	41	100.0

(3) 미술치료프로그램 회기 당 시행시간별 분포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 당 시행시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60분 미만이 4편(9.8%), 60분 이상~90분 미만은 25편(61.0%), 90분 이상~120분 미만은 11편(26.8%)으로 대부분 한 회기에 60분 이상에서 90분 미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회기 당 시행시간

회기당 시행시간	논문 수(n)	백분율(%)
60분미만	4	9.8
60분 이상~90분미만	25	61.0
90분 이상~120분미만	11	26.8
50분 이상~100분미만	1	2.4
Total	41	100.0

2. 아동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평균효과 크기

본 연구의 대상인 41편의 논문을 취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n = 259$ 개의 효과크기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평균효과 크기는 1.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분포곡선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평점을 50%이라고 하였을 때, 미술치료 중재를 경험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 분포에서 45.45% 만큼 증가하여 95.45%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큰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 표 9를 살펴보면 통합표준편차를 이용한 전체효과크기는 1.81이다. 소규모 표본(small sample size)으로 인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구한 전체평균효과 크기는 1.69로서 95% 신뢰구간에서 1.53에서 1.85의 신뢰구간을 가진 것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대상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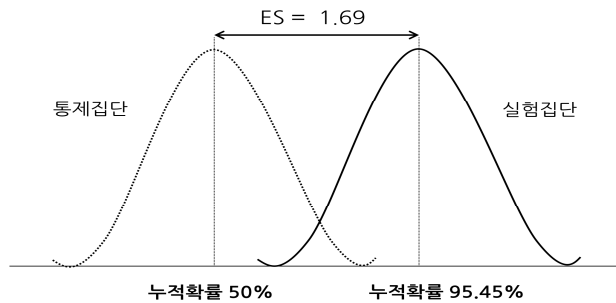


그림 3. 정상분포에서 본 전체 효과크기

표 9. 아동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평균효과 크기

	N	ES(U_3)	SD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ES	259	1.81	1.40		
ES_{SM}	259	1.69(95.45)	1.30	1.53	1.85

3. 아동 미술치료프로그램의 변인별 평균효과 크기

1) 종속변인별 평균효과크기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종속변인별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논문의 분석기준에 맞추어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 감소’,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긍정적 정서 및 기능의 향상’의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균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초등학생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종속변인별 평균효과 크기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종속변인에 따른 전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의 효과크기는 1.98이고, 부정적 정서-행동문제 감소영역의 효과크기는 1.53,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영역의 효과크기는 1.46, 긍정적 정서 및 기능 향상 영역의 효과크기는 1.89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에 대한 분산분석 실시 결과 F 값이 2.67($p < .0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종속변인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

종속변인	사례수	ES(U_3)	SD	F	사후검증 (Tukey)
자아개념-자아존중감 향상	56	1.98(97.61)	1.73	2.67*	n.s
부정적 정서- 행동문제 감소	49	1.53(93.70)	.83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90	1.46(92.79)	1.23		
긍정적 정서 및 기능 향상	64	1.89(97.06)	1.19		
Total	259	1.69(95.45)	1.30		

* $p < .05$.

2) 진행특성별 평균효과크기

(1) 집단구성원별 평균효과 크기

집단구성원에 따른 초등학생 미술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으로 나누어 집단크기를 4명~6명 이하, 7명~10명, 11명~14명, 15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집단구성원별 평균효과 크기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와 같이 집단구성원별 평균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전체효과크기는 1.93이고, 4명 이상~6명 이하는 1.68, 7명 이상~10명 이하는 2.06, 11명 이상~14명 이하는 1.10, 15명 이상은 1.27로 나타났으며, 집단구성원별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한 결과 F 값이 8.74이고 p 값이 .001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집단 구성원 수가 7명 이상~10명 이하일 경우와 11명 이상~14명 이하와 15명 이상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구성원이 11명 이상~14명 이하, 15명 이상일 경우보다 7명 이상~10 이하로 진행할 경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집단구성원별 평균효과 크기

집단구성원 수	사례수	$ES(U_3)$	SD	F	사후검증 (Tukey)
4명 이상 ~6명 이하(a)	60	1.68(95.35)	1.13	8.74***	b > c,d
7명 이상~10명 이하(b)	118	2.06(98.03)	1.58		
11명 이상 ~14명 이하(c)	56	1.10(86.43)	.58		
15명 이상(d)	25	1.27(89.80)	.62		
Total	259	1.69(95.45)	1.30		

*** $p < .001$.

(2) 총 시행횟수별 평균효과 크기

총 시행횟수에 따른 초등학생 미술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시행횟수를 10회 미만, 10회 이상~15회 미만, 15회 이상~20회 미만, 20회 이상의 네 범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총 시행횟수별 평균효과 크기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와 같이 총 시행횟수별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전체평균효과 크기는 1.93이고, 10회 미만은 .70, 10회 이상~15회 미만은 1.27, 15회 이상~20회 미만은 2.05, 20회 이상은 3.21로 나타났으며, 총 시행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실시 결과, F 값이 30.77이고 p 값이 .001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 간 평균효과 크기에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총 시행횟수가 20회 이상인 집단은 15회 이상~20회 미만인 집단의 효과크기 보다 크고, 15회 이상~20회 미만인 집단의 효과크기는 10회 이상~15회 미만인 집단과 10회 미만인 집단의 효과크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총 시행횟수별 평균효과 크기

총 시행횟수	사례수	ES(U_3)	SD	F	사후검증 (Tukey)
10회 미만(a)	18	.70(75.80)	.64	30.77***	d > c > a,b
10회 이상~15회 미만(b)	130	1.27(89.80)	.63		
15회 이상~20회 미만(c)	83	2.05(97.98)	1.53		
20회 이상(d)	28	3.21(99.93)	1.58		
Total	259	1.69(95.45)			

*** $p < .001$.

(3) 주당 시행횟수

주당 시행횟수에 따른 초등학생 미술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당 시행횟수를 1회, 1회~2회, 2회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사례수가 적은 주당 3회 이상과 주당 2회에서 4회 시행한 사례(총 9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주당 시행횟수별 평균효과 크기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와 같이 주당 시행횟수에 따른 평균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전체 효과 크기는 1.69이고, 주당 1회는 1.51, 주당 1회~2회는 1.58, 주당 2회는 1.97로 나타났으며, 주당 시행횟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분석 실시 결과 F 값이 3.49이고 p 값이 .03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평균효과 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미술치료집단 프로그램을 주 1회로 하든, 주 1회~2회로 하든, 주 2회로 하든 평균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주당 시행횟수별 평균효과 크기

주당 회기 수	사례수	ES(U_3)	SD	F	사후검증 (Tukey)
주당 1회(a)	115	1.51(93.45)	1.11	3.49*	n.s
주당 1회~2회(b)	39	1.58(94.29)	.82		
주당 2회(c)	96	1.97(97.56)	1.63		
Total	250	1.69(95.45)	1.30		

* $p < .05$.

(4) 회기 당 시행시간 평균효과 크기

회기 당 시행시간에 따른 초등학생 미술치료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기 당 시행시간을 60분 미만, 60분 이상~90분 미만, 90분 이상~120분 미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평균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아동 미술치료의 회기 당 시행시간별 평균 효과크기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와 같이 회기 당 시행시간별 평균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전체효과 크기는 1.93이고, 60분 미만은 1.46, 60분 이상~90분 미만은 1.94, 90분 이상~120분미만은 1.26으로 나타났으며, 회기 당 시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 값이 5.39이고 p 값이 .01수준에

서 집단 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증 결과 회기 당 시행시간이 60분 이상~90분 미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90분 이상~120분 미만으로 진행할 때보다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회기당 시행시간별 평균효과 크기

회기당 시행시간	사례수	$ES(U_3)$	SD	F	사후검증 (Tukey)
60분 미만(a)	110	1.46(92.79)	1.05		
60분이상~90분미만(b)	132	1.94(97.38)	1.49	5.39**	b > c
90분이상~120분미만(c)	17	1.26(89.62)	.08		
Total	259	1.69(95.45)	1.30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술치료연구와 한국예술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41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결론 도출을 위해 메타분석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초등학생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전체 평균효과 크기, 종속변인과 진행방법, 진행특성에 따른 효과크기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출판 편향을 확인하고자 편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이 된 연구결과물들에 출판 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같이 출판편향이 발생하는 것은 효과크기가 적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덜 출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따라서 학회에 발표되는 연구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실험 결과들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취소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출판 편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연구의 설계가 타당하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에 결함이 없다면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출판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은 PRISMA Flow Diagram(Moher et al., 2010)에 따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최종 41편의 논문이 선정 되었다. 논문 선정 기준은 두 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동향 분석을 한 연구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는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근의 논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논문을 선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술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문헌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아동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미술치료학회지 33편(80.5%),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편(19.5%)로 미술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예술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예술치료학회지는 2001년 창간호부터 2005년까지

는 매년 1권씩 발간하였으며, 2006년부터 2권씩 발간되었다.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미술치료연구는 1994년 창간호에 이어 2001년까지는 매년 2회 발간되었고 2002년~2004년까지는 매년 3회 발간, 2005년~2008년까지는 매년 4회 발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6회 발간이 되고 있다. 학회지의 발간수가 증가한 것은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 졌으며, 이는 미술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최근의 학회지 미술치료 연구 동향 분석은 국내의 미술치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속변인에 따른 분포는 사회성-사회적 유능성 향상 영역이 22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수경(2012), 김서안(2013), 조영미와 이동영(2016)의 사회성향상에 집단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또래와의 사회성 관계가 중요하며, 사회성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연구대상 논문의 집단구성원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8명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총 시행횟수를 살펴보면 12회가 10편으로 가장 많았다. 주당 시행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 1회가 18편으로 가장 많았고, 주 2회는 17편으로 대부분 주 1회나 주 2회를 시행하였다. 회기 당 시행 시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60분 미만이 4편, 60분 이상~90분 미만은 25편, 대부분 한회기에 60분 이상에서 90분 미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전체평균효과 크기는 최종 선정된 41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59개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 한 결과 전체평균 효과 크기는 1.69로 나타나 Cohen(1988)의 기준에 의해 큰 효과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성란(2010)과 임주영(2003)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술이라는 매체가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단계로 볼 때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초등학생 미술 치료 프로그램의 변인별 평균 효과 크기는 첫째,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종속변인별 효과 크기($n = 259$)는 자아개념-자아 존중감 향상의 효과 크기가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순옥(2004), 김지하(2011)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집단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정서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한 임주영(2003)과 홍성란(2010), 오민경(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미술치료 활동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미술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수용, 지지는 아동들에게 의식적 사고와 행동에 초점을 둔 깊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초등학생 미술치료의 진행특성(집단구성원, 총 시행횟수, 주당 시행회수, 회기 당 시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7명 이상~10명 이하로 진행할 경우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하(2011)의 연구에서 8명~10명으로 구성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과 일치하지만 임주영(2003)의 4명~6명, 유현정과 이근매(2012)의 8명~12명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이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논문에서 치료에 대한 환경적 요인(치료 배경 및 의뢰, 치료실환경, 보조치료사 유무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많을 경우, 집단인원수가 10명 미만이라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경력이 적은 치료사는 많은 수의 인원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사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필수적으로 기재 하여 정확한 정보를 통한 치료의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총 시행 횟수에 따른 효과크기는 시행횟수가 20회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6회기 이상 진행한 경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오민경(2004)의 연구와 17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정순옥(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총 회수가 12회 이하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다는 원길수(201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총 회기 수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운동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집단 프로그램 회기를 살펴보면서 종속변인에 따른 치료영역별로 프로그램 횟수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주당 시행횟수에 따른 효과 크기는 주당 2회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 검증에서 집단 간 평균효과 크기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미술치료집단 프로그램을 주 1회나, 주 1~2회, 또는 2회로 하든지 평균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주당 1~2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임주영(2003)의 연구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주당 1~2회 실시가 적당하다는 한국미술치료학회(2000)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주당 회기수가 많다고 해서 높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 설계 시 프로그램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통해 대상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되어 진다.

회기 당 시행시간에 따른 효과크기는 60분 이상~90분 미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가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진령(2005)의 참여자의 주의 집중 시간과 기능 수준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은 주의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긴 시간의 프로그램 진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오민경(2004)의 연구와 임주영(2003), 이성수(2009), 조영미와 이동영(20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미술치료가 메타 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잘 설계되어진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연구’와 ‘한국예술치료학회지’계재 논문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미술치료 전문 학회지로서 국내의 아동미술치료의 발자취를 통해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 아동 미술치료의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미술치료연구의 현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부족하거나 간과된 영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아동미술치료프로그램 각각의 연구들을 수집하여 메타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수행된 개별적 관련 연구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중재 효과와 기능 및 적용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는 변인으로 대부분 자아 존중감, 사회성, 대인 관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속변인의 동향과약은 어려웠다. 따라서 다양한 종속변인을 통합하여 통계적 수치를 제공하였다.

셋째,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치료사들에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금까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된 관련 연구의 결과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수행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문제제기를 수용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출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단순히 가능성에 대한 평균의 기댓값임을 감안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연구 역시 후속 연구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의 확장을 통해 보다 실재를 반영하는 담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미술치료를 연구한 논문 중 주요 미술치료학회지 두 곳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미술치료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메타분석 방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를 양적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향 제시에 기여하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적인 수치로만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정확하고 명료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매체, 기법 등 미술치료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효과 분석보다는 ‘연령’, ‘장애유형’, ‘종속변인’, ‘대상에 따른 미술치료프로그램 유형’, ‘치료자 변인’ 등에 따른 다양한 변인을 메타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국내의 대부분의 실험연구 및 사례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치료 배경 및 의뢰, 치료실 환경 등)에 대한 효과분석이 없다. 미술치료에서의 치료 의뢰 및 동기는 치료과정과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정보로 기재 되고 있다. 또한 집단

미술치료가 미술치료사 1명 또는 보조치료사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미술치료사 1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미술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료사 1명이 진행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 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치료 배경 및 의뢰, 치료실환경, 보조치료사 유무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진령 (2005). 한국교원대학교 인지도 평가연구.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곽남희 (2010). 저소득층 아동 대상 미술치료 연구 경향과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응용 (2011). 한국미술치료의 연구동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 **미술치료연구**, **18**(2), 463-483.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1~2009).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서안 (2013).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연구: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 (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201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빈, 홍은주 (2008). 국내 미술치료 연구동향: 국내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1994~2007).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71-86.
- 김지하 (2011). 집단미술치료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현, 김을란 (2012). 우울에 대한 집단미술치료 효과 메타분석. **미술치료연구**, **19**(5), 993-1006.
- 박미숙, 이근매 (2015). 성인미술치료의 연구동향: 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2005-2014). **예술심리치료연구**, **11**(4), 67-87.
- 박아름 (2018). 저소득층 아동에 관한 미술치료연구의 연구동향과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16). 아동의 우울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 (2008). 청소년 미술치료에 대한 메타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경선, 김진선 (2017). 초등학생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예술치료학**

- 회지, **17**(2), 87-105. doi:10.18253/kart.2017.17.2.06
- 서주연 (2011). 아동, 청소년과 성인미술치료효과에 대한 비교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민경 (2004). 미술치료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 및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사례 연구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원길수 (2010). 미술치료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현정, 이근매 (2012). 장애아동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술치료연구**, **19**(3), 461-484.
- 윤현아 (2013). 우울 감소를 위한 집단 미술치료 효과의 메타분석: 국내 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수 (2009). 미술치료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일차적 증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 (2010).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순천향대학교 건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 (1993).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충북: 충북대학교 출판부.
- 임주영 (2003). 아동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국 (2007). 집단미술치료와 치료적 요인의 연구 경향과 향후 과제. **미술치료연구**, **14**(3), 577-596.
- 정순옥 (2004).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관련 변인에 미치는 미술치료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 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용래, 노상선, 조기현, 홍세희 (2014).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둔 개입의 효과: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903-928.
- 조영미, 이동영 (2016). 아동청소년대상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회적 증진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135-162.
- 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화문화사.
- 황명희 (2014). 아동미술치료 연구도구에 대한 메타분석: 그림투사검사 및 자아존중감척도.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란, 유형근, 김현경 (2010). 초등학교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방법연구**, **22**(2), 71-90. doi:10.17927/tkjems.2010.22.2.71
- 홍은주, 조미영 (2010). 아동 및 청소년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997~2010. **아동교육**, **19**(4), 299-310.
- 홍성란 (2010). 초등학교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 Bratton, S. C., Ray, D., Rhine, T., & Jones, L. (2005). The efficacy of play therapy with children: A meta-analytic review of treatment outcome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4), 376-390. doi:10.1037/0735-7028.36.4.376
- Campbell, E. R. (2010).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in reducing symptoms of trauma, anxiety, and stress: A meta-analysis*. Ann Arbor, MI: Proquest LLC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Minder, C. (1997). Bias in meta - 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MJ*, 315(7109), 629-634. doi:10.1136/bmj.315.7109.629
- Eric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Company.
- Glass, G. V. (1982). Meta-analysis: An approach to the synthesis of research result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9(2), 93-112. doi:10.1002/tea.3660190202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Prisma Group. (2010).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8(5), 336-341. doi:10.1016/j.ijsu.2010.02.007
- Patterson, C. H. (1973).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Harper & Row.
- Slayton, S. C., D'Archer, J., & Kaplan, F.(2010). Outcome Studies on the Efficacy of Art therapy: A Review of findings. *Art Therapy*, 27(3), 108-118. doi:10.1080/07421656.2010.10129660

논문투고: 18.12.14

수정원고접수: 19.03.07

최종게재결정: 19.04.16

<부록 1> 최종 연구논문 41편 선정 목록

NO	〈 한국 미술 치료 학회 〉						
	논 문 제 목	저자명	출판년도	집단크기	대상아동	회기	소요시간
1	아동의 문제행동,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놀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와 집단미술치료의 효과비교 연구	이명옥 이정숙	2010년	실험5명/ 통제5명	부적응/ 장애아동	25회	60분
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모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인숙	2010년	실험7명/ 통제7명	한부모 가정아동	20회	60분
3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10년	실험14명/ 통제14명	시설보호 아동	18회	65분
4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김진주 고정자	2010년	실험5명/ 통제6명	지역아동센 터아동	15회	90분
5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김재원 김갑숙	2010년	실험9명/ 통제9명	저소득층아 동	18회	60~80분
6	입체조형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권선영 이미옥	2011년	실험8명/ 통제8명	한부모 가정아동	20회	70~80분
7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뇌기능지수에 미치는 효과	이봉화 최선남	2011년	실험12명/ 통제12명	일반아동	15회	90분
8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적응행동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강선화 한영희	2011년	실험6명/ 통제6명	한부모 가정아동	20회	100분
9	협동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재원 김갑숙	2011년	실험8명/ 통제8명	한부모 가정아동	20회	90분
10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정훈 고영란 양정미	2012년	실험6명/ 통제6명	시설아동	20회	60분
11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 행동에 미치는 효과	오가영	2012년	실험18명/ 통제18명	일반아동	12회	60분
12	만다라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정서지능향상에 미치는 효과	최효숙 최외선	2012년	집단27명/ 통제27명	일반아동	12회	50~100분
13	점토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스트레스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임미은 김갑숙	2012년	실험11명/ 통제11명	일반아동	15회	60분
14	집단미술치료가 장애형제·자매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향숙 최은영	2013년	실험10명/ 통제10명	장애아동 형제	12회	70분
15	한국화 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한지혜 전순영	2013년	실험8명/ 통제8명	일반아동	14회	80분
16	정서지능증진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최지원 최남선	2013년	실험8명/ 통제8명	일반아동	16회	60분
17	계슈탈트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저학년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이미선 김현자	2013년	실험8명/ 통제8명	저소득층아 동	24회	90분
18	집단미술치료가 위축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배주란 최선남	2014년	실험5명/ 통제5명	지역아동센 터아동	14회	60분
19	학급단위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백경미 강건택 윤은주	2014년	실험25명/ 통제24명	일반아동	10회	60분
20	집단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이서윤 최선남	2014년	실험8명/ 통제8명	일반아동	12회	80분

NO	〈 한국 미술 치료 학회 〉						
	논 문 제 목	저자명	출판년도	집단크기	대상아동	회기	소요시간
21	사회 학습원리에 따른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가정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서혜진 최은영	2014년	실험10명/ 통제10명	저소득층 아동	16회	60분
22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인지 -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미라 정현희	2014년	실험9명/ 통제9명	지적장애 아동	16회	60분
23	추상표현 중심 미술치료프로그램이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내재화 증상에 미치는 효과	신소영 송현중	2014년	실험5명/ 통제5명	장애아동	20회	60분이상
24	한국화 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	최윤희 전순영	2014년	실험12명/ 통제12명	일반아동	15회	60분
2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인숙	2015년	실험6명/ 통제6명	한부모 가정아동	20회	50분
26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강영숙 고성자	2015년	실험7명/ 통제7명	일반아동	15회	60~80분
27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공감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송민정 김갑숙	2015년	실험9명/ 통제9명	시설아동	15회	60~70분
28	만다라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김진숙 전순영	2015년	실험10명/ 통제10명	일반아동	12회	50분
29	ADHD성향 아동의 창의성 증가와 부주위성 및 과잉행동, 충동성 감소를 위한 인지학 (人智學)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배숙경 김택호	2016년	실험12명/ 통제10명	ADHD성향 아동	12회	90분
30	협동작업 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초등학생의 자기표현, 또래관계,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표한순 원희랑	2016년	실험12명/ 통제12명	학교부적응 아동	10회	60분
31	한국화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박가희 전순영	2016년	실험6명/ 통제6명	저소득층 아동	12회	60분
32	놀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정유미 전순영	2016년	실험8명/ 통제8명	학교부적응 아동	15회	90분
33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혜영 공마리아 최은영	2017년	실험9명/ 통제9명	한부모 가정아동	13회	90분

N0	〈 한국 예술 치료 학회 〉						
	논 문 제 목	저자명	출판년도	집단크기	대상 아동	회기	소요시간
1	통합적 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시종	2010년	실험13명/ 통제13명	보육시설아동	17회	주1회 120분
2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장윤진	2010년	실험6명/ 통제6명	지역아동센터	16회	주2회 50분
3	집단미술치료가 모자 보호시설 아동의 불안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주현	2010년	실험5명/ 통제5명	보호시설아동	16회	주2회 60분
4	집단미술치료가 장애 형제의 태도변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소은숙	2011년	실험13명/ 통제13명	초등학생	20회	주1회 60분
5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분노조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리다 김경희	2014년	실험10명/ 통제10명	지역아동센터	12회	주2회 60분
6	동물매개활동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현수 오가영	2015년	실험5명/ 통제5명	지역아동센터	12회	주2회 80분
7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모자가정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송윤수 김설화	2015년	실험5명/ 통제5명	시설아동	20회	주1회 60분
8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모선미 류정미 오승진	2017년	실험8명/ 통제8명	다문화가정 아동	12회	주1회 60분